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성민 credinal@hanafn.com
RA 김상인 sangin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2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트럼프 2.0시대의 ESG

E for Energy

예고(?)한데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첫 주에 70개 이상의 기후 및 그린에너지 관련 정책 내지 법안들을 폐기/변복하는 광폭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신 행정부가 펼친 대표적인 반 ESG정책을 들자면 석유/가스의 해상시추금지 해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및 UN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체결된 여타 공약철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내 기후정책 관련부서 자체를 폐쇄조치하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기반한 보조금 등의 집행중단을 결정하였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ESG전반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에는 그가 무언가를 크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ESG가 활발하거나 관련 정책/제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너무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인권 등 환경과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ESG펀드와 관련 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ESG관련 기업 및 금융 공시의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표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도 강화되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걸림돌들이 지천에 널린 상황이 조성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미국 신 행정부의 반ESG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ESG진영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탄소배출량 감축 및 기온상승억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사태 등을 통한 에너지위기가 가중되면서 친환경 추진 관련 동력이 이전대비 약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도 ESG-Oriented Fund로의 자금유입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으며 운용사들 또한 소송위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Net Zero Asset Manager를 탈퇴하였으며 블랙록 이외에도 미국내 최대 6개 주요은행은 Net-Zero Banking Alliance를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탈퇴하였다.

그 와중에 그나마 희망적인 포인트는 유럽계 자본의 동향이다. 대표적인 운용사 주도 기후변화협약인 Climate Action 100+ 그룹에서 미국계 회원사인 State Street, JP Morgan, Pimco 등이 탈퇴하였지만 유럽계 운용사인 Amundi, UBS, BNP Paribas 등은 잔류를 결정한 것이다. 사실 그간 ESG이슈가 태동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권역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력이나 여타 영향력 측면에서 미국의 위상이 (다른 여타영역과 마찬가지로) 컸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지우지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재집권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ESG흐름은 계속 쇠락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ESG진영 전문가들의 전망은(그럴 수 밖에 없는 편향이 작용하겠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내 ESG기조는 후퇴할 수 있으나, 세계 금융계와 유럽의 ESG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전망과는 별개로 차제에 최근 ESG이슈가 어떤 양상을 띄어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추동력은 강약이 조절될 수 있겠지만 ESG 자체적으로 현재 어떤 위치에 서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즉, ESG진영 스스로가 그간 초심이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내지 (필요하다면)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 ESG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기류(의견)는 ESG가 소위 친환경을 표방하는 사회 운동차원을 벗어나서 산업/기업 측면에서 하나의 경영관리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ESG등급이 높은 기업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적 친환경적일 가능성이 높고, 직원들에게도 잘해 줄 가능성이 높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잘 관리되는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ESG이슈와 관련된 또 다른 최근의 변화는 에너지전환에 관한 개념 내지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투자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그냥 회피하는 방식으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탄소 다배출 업종내지 기업들이 탄소감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투자자들은 단순히 탄소배출문제를 배출총량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뛰어넘어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등 자체적인 진화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에도 기후변화외제 자체는 결정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으로 ESG운동은 어떤 방향성을 띄게 될 것이고 그런 방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접근포인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이 측면을 놓고 지나간다면 ESG운동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기존에 해왔던 ESG이슈에 대한 흑백논리식 접근을 이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ESG는 선이고 반ESG는 악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다가는 외부환경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사고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SG의 E는 환경론자들에게는 Environment로 인식되지만 트럼프에게는 Energy로 인식되는 것이 하나의 예시이다.

그런 취지로 하나의 대안으로서 비용과 효익이라는 매트릭스방식의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고 각자의 철학 및 입장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매트릭스 접근의 골자이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ESG노선은 서구진영의 맹방인 유럽인들에게서는 배척당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이지만 그간 ESG논의에서 소외감을 표출해온 개발도상국 내지 저개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따라 파리협약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는 그 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좋은 건 비싸고,싼 건 안좋고

도표 1. ESG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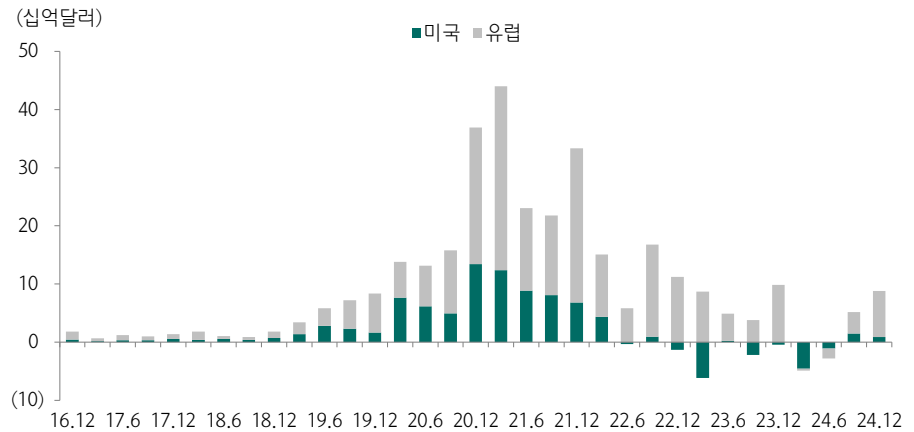
구분		환경에(효익)		
		좋다	안좋다	
경제적으로 (비용)	싸다	X	O → 공화당/개도국	
	비싸다	O ↓ 민주당/선진국	X	-

자료: 하나증권

주: O은 선택가능한 대안, X는 불가능한 조합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관련 자금유입은 감소세 전환.
유럽도 예외 아님

도표 2. ESG ETF 순유입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트럼프 기후정책의 골자는
ABB(All But Biden)

도표 3. 트럼프, 바이든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정책 70개 철회

구분	정책
목표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년까지 100% 탄소 오염 없는 전기 공급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 2030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 •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량 100%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 • 2030년까지 미국 내 토지와 수역의 30% 보존
기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국내 기후 정책실 및 백악관 청정 에너지 혁신·이행실 폐지 • 민간 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 폐지 • Justice40 이니셔티브 및 부처간 백악관 환경 협의회·환경 자문 위원회 폐지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해상 시추 금지 해제 •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 해안평지 석유/가스 임대 프로그램 중단 해제 •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허가 중단 해제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 철회 결정 반복
청정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금 집행 중단 • 해상풍력발전 목적 해안선 지역의 임대 철회 • 재생 에너지를 위한 토지 임대 중단 • 아이다호주 Lava Ridge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기후 다자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기후협정 및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체결된 기타 공약 탈퇴 • UNFCCC 하에서 체결된 재정적 약속 철회 • 미국 국제 기후 금융 계획 철회

자료: FT, 하나증권

크레딧스프레드 동향 및 전략

국고채금리 혼조세, 신용스프레드는 강보합

설 연휴를 맞이한 국내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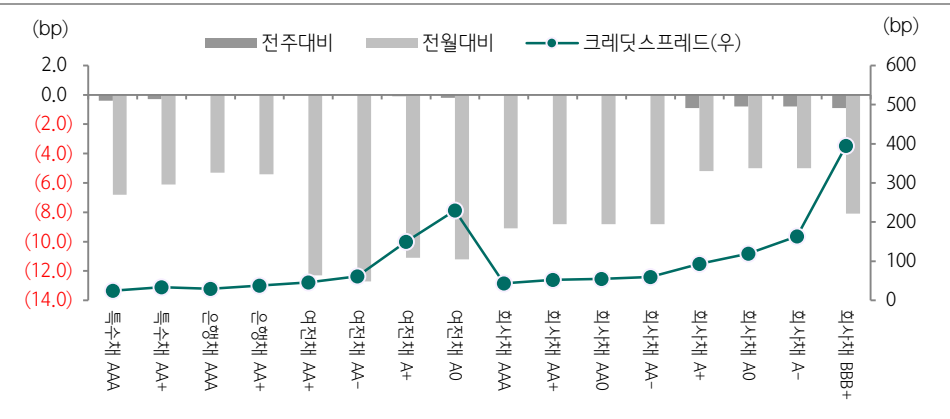
연휴 사이 있었던
Fed 기준금리 동결의
국내시장 영향력은 제한적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설 명절로 인해 영업일수가 1일에 그쳤던 가운데, 보합세를 보였다. 연휴 중 미국채 금리의 경우 강세를 보였는데, 답시크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되었고, 트럼프가 Fed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Fed는 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에 대한 여진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 및 이민자 추방 정책 등에 따른 물가상승 자극을 염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만큼 미국채 금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국고채 시장도 오랜 연휴 끝에 개장되음에도 변동성이 제한되었다. 주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bp 상승한 2.57%, 10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한 2.857%로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감했다.

신용스프레드
강보합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1월중 연초효과 등에 기반하여 월간 단위로는 강세를 지속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멘텀이 소멸되고 있다. 절대적으로 금리메리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월중에도 발행시장의 혼풍은 지속될 것이고 신용스프레드도 강보합이상의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1월과 같은 속도와 강도의 흐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 주요 크레딧 채권 스프레드 주간/월간 변동 (3년물 기준)



주: 2025.1.31 기준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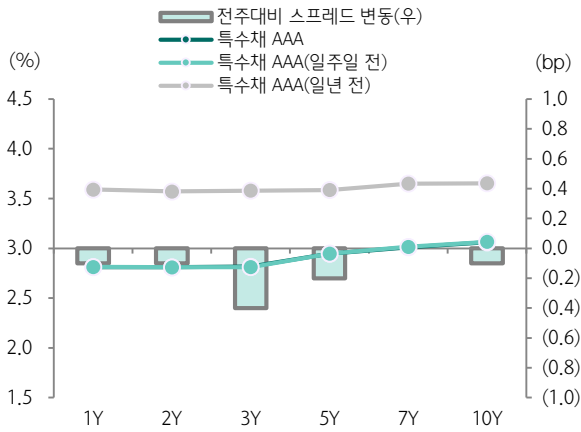
도표 2. 크레딧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단위: %, bp)

구분	금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변동(WoW)					스프레드 변동(MoM)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2.65	2.65	2.57	2.70	2.86	-	-	-	-	-	-0.2	0.2	1.0	0.2	-0.4	-5.0	-12.0	-2.5	-6.3	-11.8	
특수채	AAA	2.81	2.81	2.82	2.95	3.06	15.7	18.9	24.7	24.5	20.3	-0.1	-0.1	-0.4	-0.2	-0.1	-17.8	-4.8	-6.8	-3.7	-2.5
	AA+	2.88	2.92	2.91	3.06	3.26	22.2	29.8	34.1	35.9	39.9	0.0	-0.1	-0.3	-0.2	0.0	-16.3	-5.9	-6.1	-4.1	-2.6
은행채	AAA	2.86	2.80	2.87	3.00	3.42	20.6	18.2	29.5	30.0	55.9	-0.1	-0.1	0.0	0.0	-0.1	-13.6	-4.0	-5.3	-2.4	-3.3
	AA+	2.92	2.90	2.95	3.10	3.49	26.7	27.8	38.0	40.1	63.6	-0.1	-0.1	0.0	0.0	0.0	-13.6	-4.0	-5.4	-2.4	-3.3
여전채	AA+	2.99	2.95	3.03	3.13	4.23	33.8	33.2	46.0	43.0	137.4	-0.3	0.2	0.0	0.0	0.0	-19.9	-11.8	-12.3	-2.6	-1.7
	AA-	3.08	3.07	3.19	3.44	4.63	42.6	45.1	61.5	73.7	177.3	-0.2	0.3	0.0	0.0	0.0	-20.7	-12.5	-12.7	-2.6	-1.3
	A+	3.77	3.78	4.07	4.57	5.33	111.4	115.9	149.9	186.8	246.8	-0.7	-0.1	-0.1	0.0	-0.1	-19.3	-11.1	-11.1	-2.1	-1.6
	A0	4.50	4.59	4.87	5.23	5.75	184.6	196.5	229.7	252.5	288.9	-0.5	-0.1	-0.2	0.0	0.0	-19.1	-11.1	-11.2	-2.1	-1.4
회사채	AAA	2.97	2.94	3.00	3.09	3.44	32.0	32.3	43.1	38.4	58.6	-0.3	-0.2	0.0	0.0	0.0	-11.9	-4.2	-9.1	-5.0	-4.1
	AA+	3.01	3.02	3.09	3.17	3.73	36.0	40.0	52.2	47.0	87.7	-0.1	-0.1	0.0	0.0	-0.1	-12.0	-3.6	-8.8	-6.3	-3.3
	AA0	3.04	3.04	3.12	3.24	4.08	38.9	42.3	54.8	53.3	121.8	-0.1	-0.1	0.0	0.0	0.0	-11.8	-3.6	-8.8	-6.0	-3.4
	AA-	3.07	3.09	3.17	3.34	4.43	42.0	46.7	59.6	63.7	157.6	-0.1	-0.1	0.0	0.0	-0.1	-11.7	-2.7	-8.8	-6.1	-3.3
	A+	3.28	3.33	3.51	4.01	5.01	62.3	70.8	93.6	131.1	215.1	-0.2	-0.9	-0.9	-1.0	0.0	-10.1	-3.1	-5.2	-4.8	-2.0
	A0	3.44	3.50	3.76	4.44	5.47	78.2	87.9	119.1	173.9	261.0	-0.2	-0.9	-0.8	-1.0	-0.1	-10.0	-2.9	-5.0	-4.6	-2.0
	A-	3.70	3.83	4.21	5.03	5.98	104.8	120.9	163.7	232.5	312.1	-0.2	-0.9	-0.8	-1.0	0.0	-9.8	-2.9	-5.0	-4.6	-2.0
	BBB+	4.84	5.87	6.52	6.91	7.47	218.3	325.3	394.6	420.8	461.2	-0.1	-0.8	-0.9	-1.0	-0.1	-9.2	-3.1	-8.1	-8.3	-5.5

주: 1) 2025.1.31 기준, 2) 1Y, 2Y는 통안채(이표) 동월물 대비. 이외 3Y 이상은 국고채 동월물 대비 2) 스프레드의 적색은 강세를 녹색은 약세를 나타냄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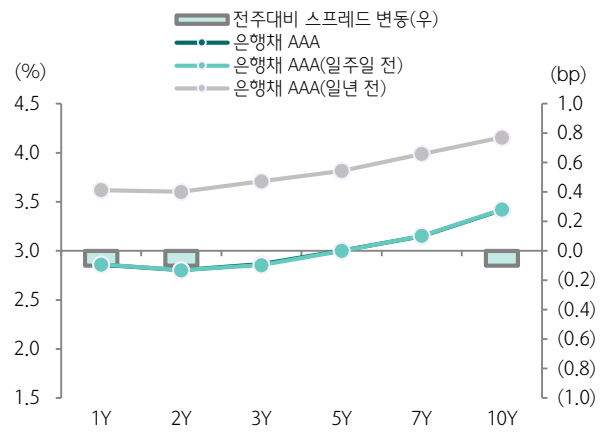
도표 3. 특수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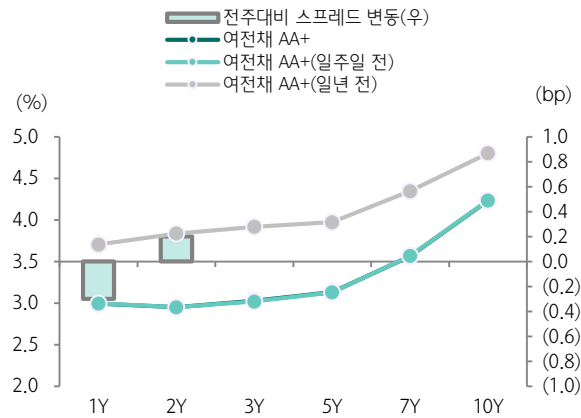
도표 4. 은행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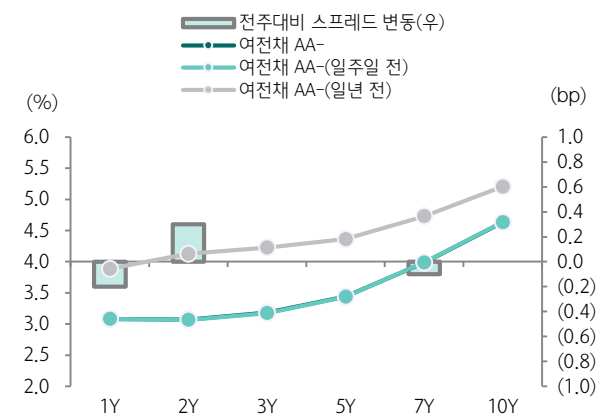
도표 5.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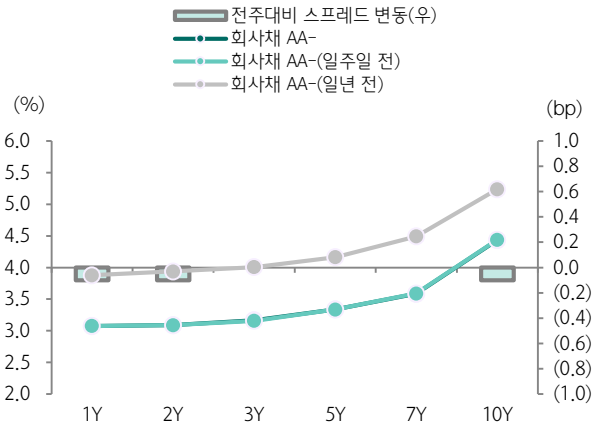
도표 6.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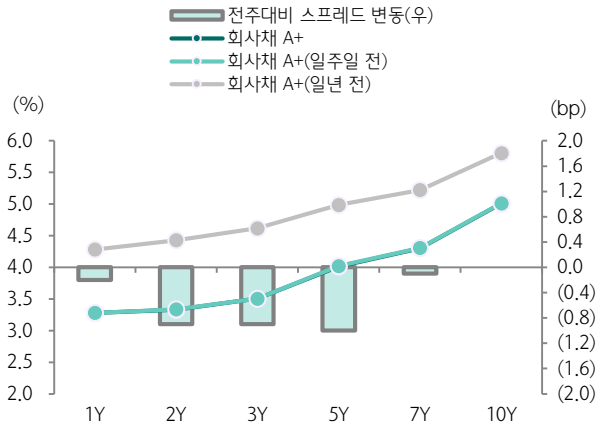
도표 7. 회사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8. 회사채 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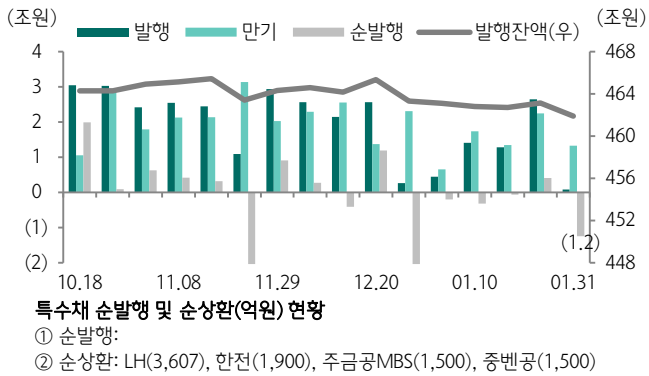


주: 2025.1.31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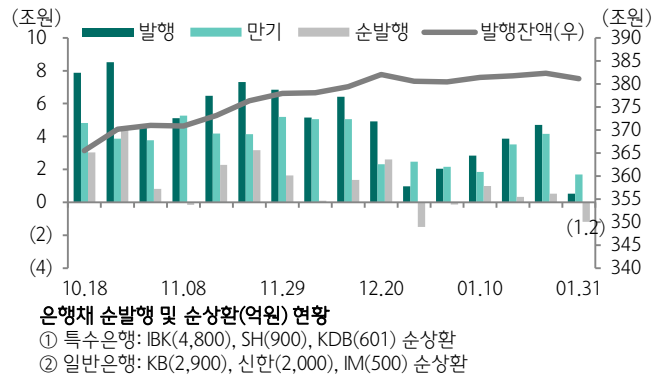
발행시장

도표 9. 특수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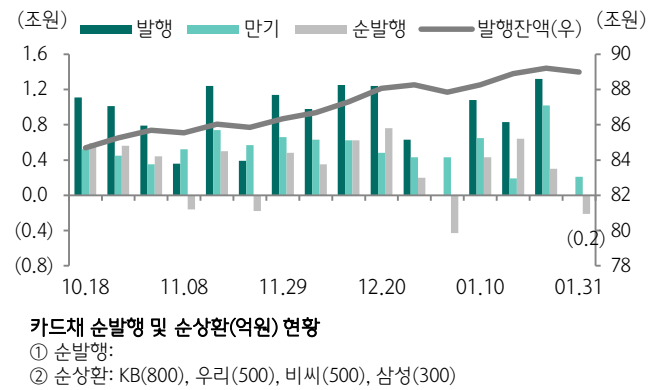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0.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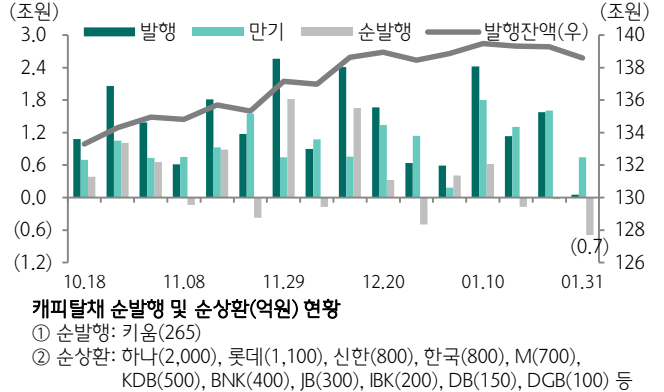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1. 카드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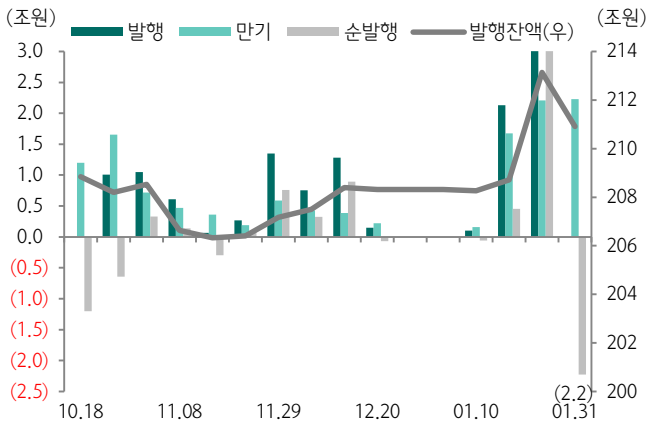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2. 캐피탈채 발행/만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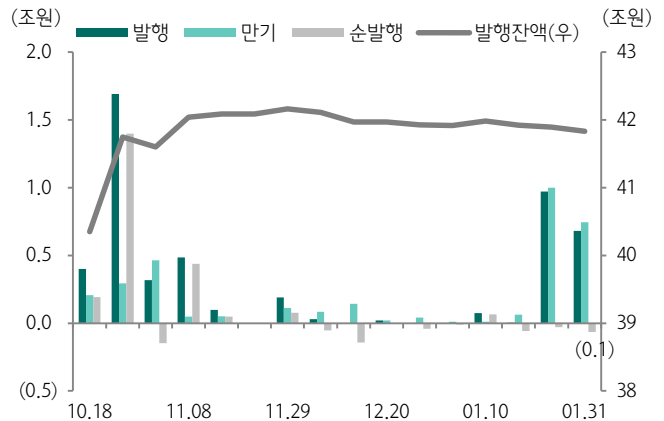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3.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4.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5.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 만기	금액		참여 금액	수요예측 경쟁률(:1)	금리밴드			결정 스프 레드	사용목적
					발행	예측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5-02-04	롯데손해보험(후)18	A-	2025-02-12	10Y (5Y클)	-	1,000	-	-	절대금리	5.5	+5.9	-	운영
2025-02-04	LS전선31-1	A+	2025-02-13	2Y	-	400	-	-	개별민평2Y	-30.0	+30.0	-	채무상환
2025-02-04	LS전선31-2	A+	2025-02-13	3Y	-	400	-	-	개별민평3Y	-30.0	+30.0	-	채무상환
2025-02-04	에스이그린에너지3	AAA	2025-02-13	1Y	-	900	-	-	개별민평1Y	-20.0	+0.0	-	채무상환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주: 공란은 수요예측 결과 공시 전

도표 16.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대상 기업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발행사	회사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만기	예측금액	금리밴드			사용목적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5-02-05	메리츠화재해상보험(후)	12	AA	2025-02-13	10Y(5Y클)	1500	절대금리	3.8	4.3	운영, 채무상환
2025-02-05	세아베스틸	2-1	A+	2025-02-13	3Y	600	개별민평3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세아베스틸	2-2	A+	2025-02-13	5Y	300	개별민평5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신한지주(신종)	17	AA-	2025-02-13	영구(5Y클)	2700	절대금리	3.3	4	운영, 채무상환
2025-02-05	GS에너지	18-1	AA	2025-02-13	3Y	1000	개별민평3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GS에너지	18-2	AA	2025-02-13	5Y	500	개별민평5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연합자산관리	38-1	AA	2025-02-13	2Y	400	개별민평2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연합자산관리	38-2	AA	2025-02-13	3Y	1600	개별민평3Y	-30	30	채무상환
2025-02-05	연합자산관리	38-3	AA	2025-02-13	5Y	500	개별민평5Y	-30	30	채무상환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유통시장

도표 17.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상위거래

(단위: 억원, %, bp)

종목명	신용등급	거래금액	거래일	만기일	잔존기간	민평금리	평균거래금리	평균-민평
한국항공우주산업28-1	AA-	900	2025-01-31	2028-01-24	3년	2.987	3.008	2.1
한국서부발전52-1(녹)	AAA	800	2025-01-31	2025-03-28	3월	3.116	3.128	1.1
에스케이하이닉스226-1	AA0	600	2025-01-31	2028-01-20	3년	2.918	2.976	5.8
대상144-2	AA-	300	2025-01-31	2026-01-29	1년	2.955	2.955	0.0
롯데렌탈61-2	A+	300	2025-01-31	2027-01-22	2년	3.485	3.517	3.2
한화251-2	A+	150	2025-01-31	2027-09-10	3년	3.338	3.309	-2.9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9-1	BBB+	133	2025-01-31	2026-01-23	1년	7.000	6.720	-28.0
LG화학58-1	AA+	100	2025-01-31	2028-01-24	3년	2.974	2.981	0.7
에스파워1-2	AA+	47	2025-01-31	2025-02-12	3월	3.174	3.090	-8.4
한국수력원자력57-1	AAA	46	2025-01-31	2025-05-25	6월	3.073	2.780	-29.3

주: 1) 2025.1.27~2025.1.31,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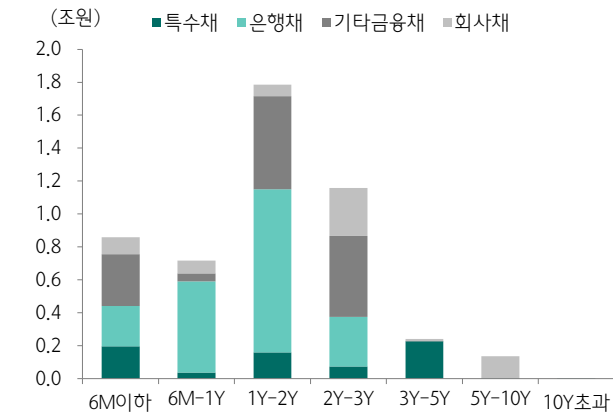
도표 18. 주간 회사채 강/약세거래 현황

(단위: 억원, bp)

강세				약세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9-2(1.5년)	BBB+	34	-34.9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3-2(2년)	A-	10	34.7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9-1(1년)	BBB+	34	-32.7	에이치디현대케미칼10-1(2년)	A0	30	25.3
한국수력원자력57-1(6월)	AAA	46	-29.3	한진115-1(1년)	BBB+	11	24.2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9-1(1년)	BBB+	133	-28.0	지에스이앤알24(1년)	A+	12	11.3
JB금융지주11-2(6월)	AA+	22	-24.3	우리금융에프앤아이3-1(3월)	A0	11	8.9
신한금융지주137(1년)	AAA	33	-12.2	에스케이하이닉스226-1(3년)	AA0	600	5.8
LG이노텍43-2(1년)	AA-	33	-12.0	롯데렌탈61-2(2년)	A+	300	3.2
여주에너지서비스1-1(1년)	AA0	22	-10.6	한국항공우주산업28-1(3년)	AA-	900	2.1
미래에셋증권55(1년)	AA0	41	-9.5	한화토탈에너지스25-1(3월)	AA-	42	1.7
에스파워1-2(3월)	AA+	47	-8.4	한국서부발전52-1(녹)(3월)	AAA	8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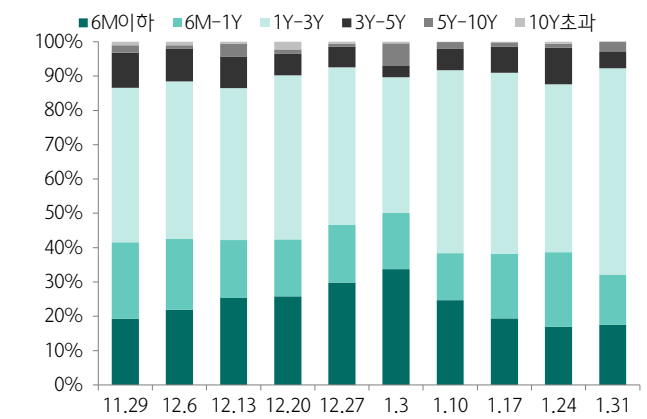
주: 1) 2025.1.27~2025.1.31,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도표 19.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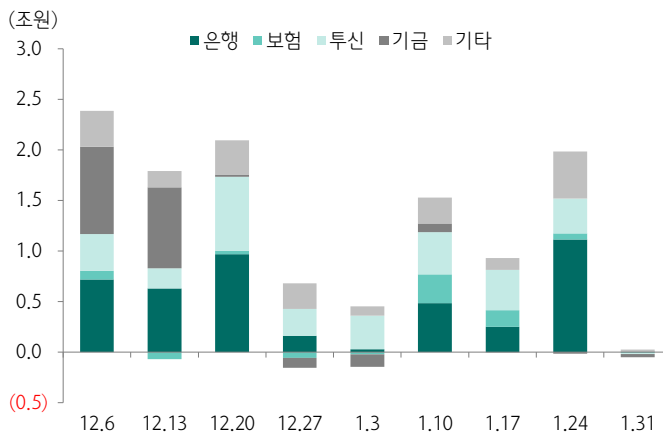
주: 2025.1.27 ~ 2025.1.31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0.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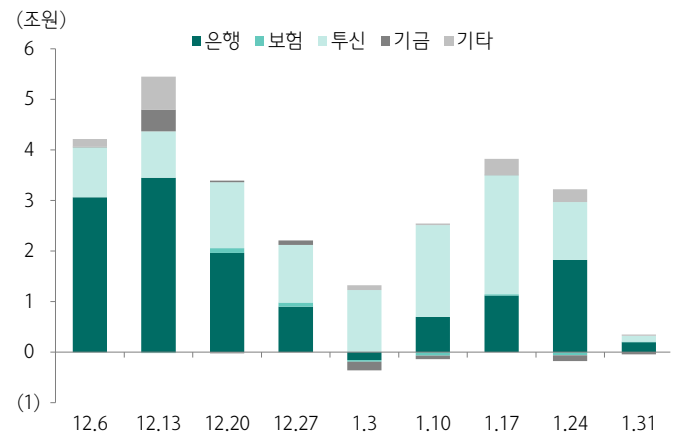
주: 주간단위(월~금) 작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1. 투자자별 특수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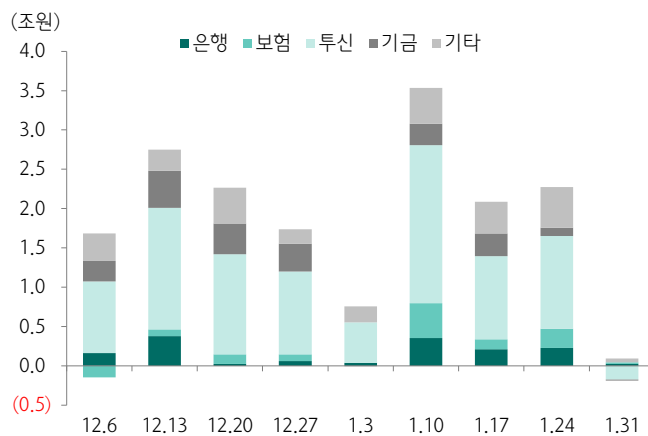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2.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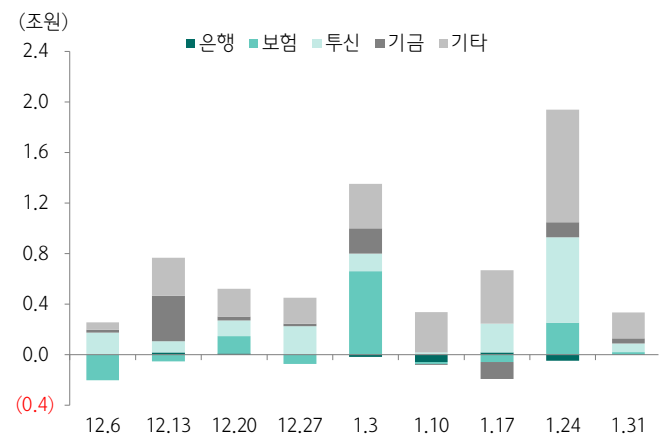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3. 투자자별 여전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4.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신용등급 및 전망 변경 내역

지난주 등급 및 전망 변경은 0건 있었다.

(등급 상향: 0개, 등급 하향: 0개, 전망 상향: 0개, 전망 하향: 0개)

도표 25. 채권등급/전망 변경 내역 (BBB- 이상 등급 기준)

기업명	평가사	적용등급			구분	내용
		변경전	변경후	최종변경일		
-	-	-	-	-	-	-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6.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 2.3 기준)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상향 검토			
긍정적	S-Oil(AA0/정유, 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AA-/바이오) 엘지씨엔에스(AA-/IT) 아이엠캐피탈(A+/캐피탈) 디엘에너지(A0/지주) HD현대일렉트릭(A0/전기장비) HD현대중공업(A0/조선) 현대로템(A0/방산) 우리금융에프앤아이(A-/기타금융)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대한항공(A-/항공)	S-Oil(AA0/정유, 석유화학) 현대글로비스(AA0/종합물류)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엘지씨엔에스(AA-/IT) 금호석유화학(A+/석유화학) 티케이이태광(A+/신발제조) 평택에너지엔파워(A0/화력발전) 삼양식품(A0/식품제조) 디엘에너지(A0/지주) HD현대중공업(A0/조선) HD현대(A0/지주) HD현대일렉트릭(A0/전기장비) 현대로템(A0/방산)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디엔오모티브(A-/자동차부품, 기계) 대한항공(A-/항공) 한진칼(BBB+/지주) 화신(BBB0/자동차부품) 두산(BBB0/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AA-/바이오) 엘지씨엔에스(AA-/IT) 아이엠캐피탈(A+/캐피탈) 티케이이태광(A+/신발제조) 삼양식품(A0/식품제조) HD현대(A0/지주) HD현대중공업(A0/조선) HD현대일렉트릭(A0/전기장비) 현대로템(A0/방산) 씨제이씨지브이(A-/영화관) 디엔오모티브(A-/자동차부품, 기계) JW홀딩스(BBB-/지주) 동방(BBB-/물류) 대한항공(A-/항공) 한진칼(BBB+/지주)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7.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 2.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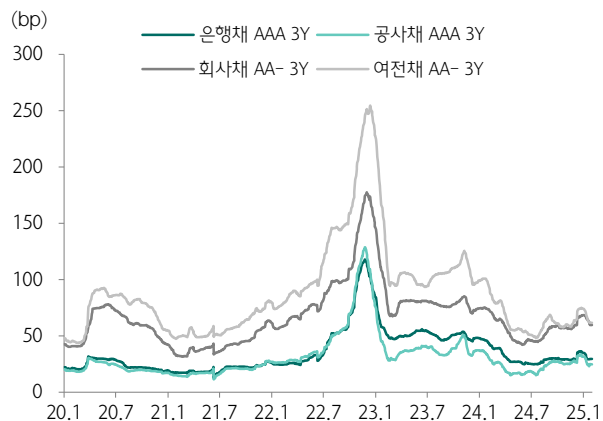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하향 검토	롯데렌탈(AA-/렌탈) 에스케이스페셜티(A+/특수가스)	에스케이스페셜티(A+/특수가스)	고려아연(AA+/비철금속) 에스케이스페셜티(A+/특수가스)
부정적	엔씨소프트(AA0/게임) 롯데케미칼(AA0/석유화학) 롯데캐피탈(AA-/캐피탈) 롯데지주(AA-/지주) 롯데물산(AA-/물산) 한온시스템(AA-/자동차부품) 넷마블(A+/게임) 롯데건설(A+/건설) SKC(A+/지주) 쌍용씨앤이(A0/시멘트) 동화기업(A-/목재가공) 에스케이어드밴스드(A-/석유화학) 여천NCC(A-/석유화학) 케이씨씨건설(A-/건설) 효성화학(BBB+/석유화학) 풀무원(BBB+/식품제조) 한독(BBB+/제약) 이랜드윌드(BBB0/의류) 한솔홈데코(BBB0/목재가공)	고려아연(AA+/비철금속) 엘지화학(AA+/석유화학) 엔씨소프트(AA0/게임) 한화솔루션(AA0/석유화학) 롯데케미칼(AA0/석유화학) 롯데지주(AA-/지주) 하나증권(AA-/증권) 한온시스템(AA-/자동차부품) 롯데건설(A+/건설) SKC(A+/지주) 쌍용씨앤이(A0/시멘트) 컴투스(A0/게임)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A-/증권) 케이씨씨건설(A-/건설) 풀무원식품(A-/식품제조) 에스케이어드밴스드(A-/석유화학) 동화기업(A-/목재) 효성화학(BBB+/석유화학) 대동(BBB+/농기계) 동원건설산업(BBB0/건설) 제이티비씨(BBB0/방송) 에스엘엘중앙(BBB0/방송)	롯데케미칼(AA0/석유화학) 롯데지주(AA-/지주) 한온시스템(AA-/자동차부품)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롯데건설(A+/건설) 넷마블(A+/게임)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SKC(A+/지주) 쌍용씨앤이(A0/시멘트) HD현대케미칼(A0/석유화학) 에스케이아이테크놀로지(A0/이차전지소재) 에코프로엠(A0/이차전지소재) 에코프로(A-/지주) 여천NCC(A-/석유화학) 풀무원식품(A-/식품제조) 엠캐피탈(A-/캐피탈) 오케이캐피탈(BBB+/캐피탈) 대동(BBB+/농기계) 동원건설산업(BBB0/건설) 한신공영(BBB0/건설) 제이티비씨(BBB0/방송)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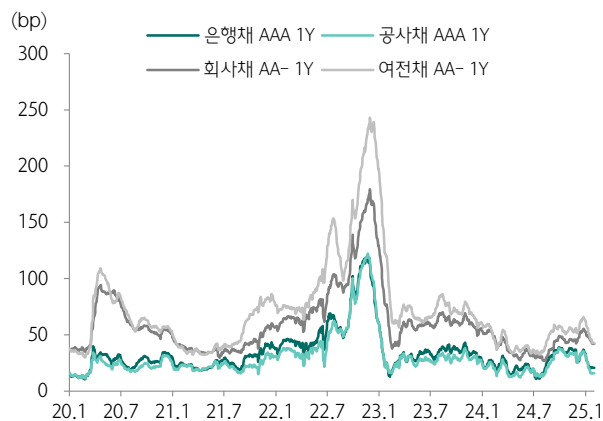
주요금리차(1)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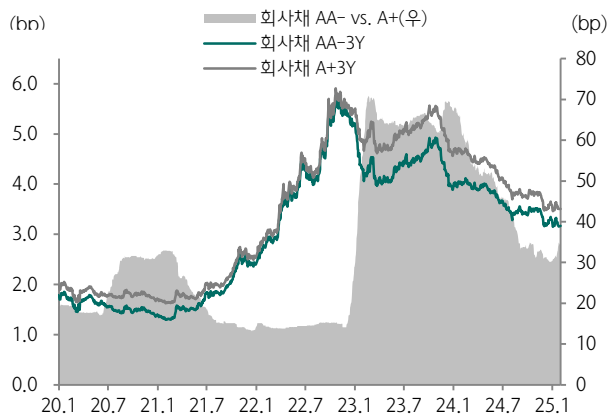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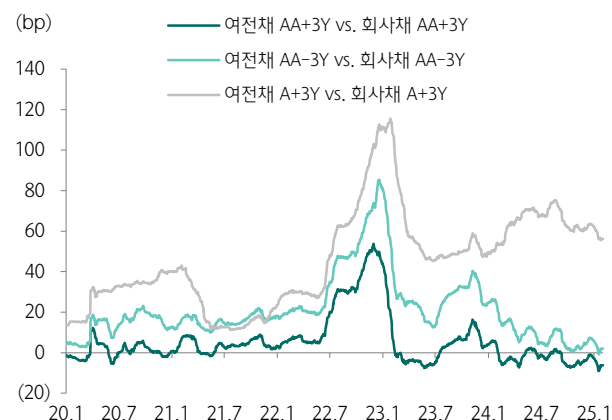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A+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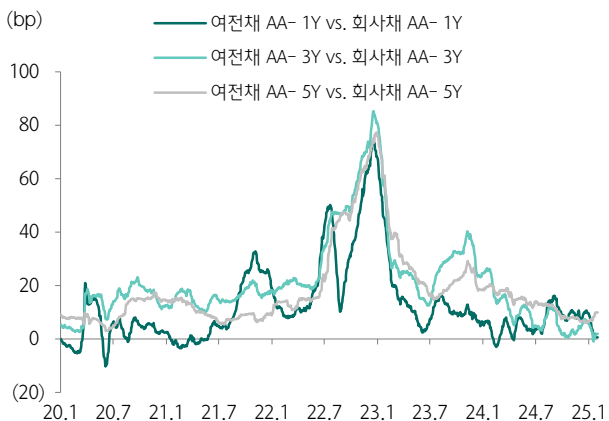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3Y/회사채3Y 스프레드 (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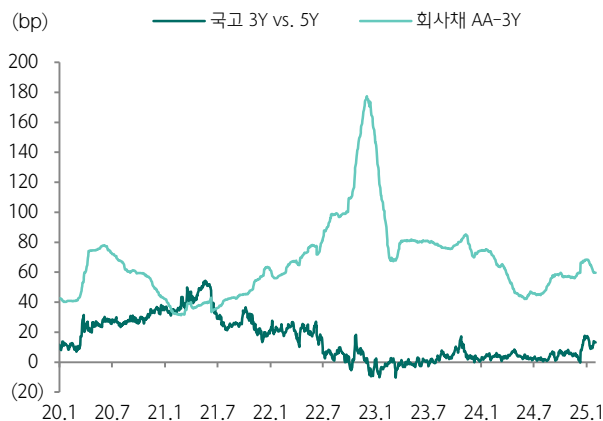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1Y/3Y/5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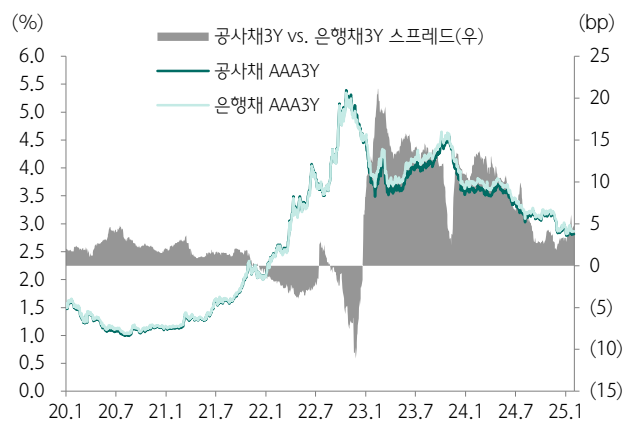
국채 중단기 스프레드 및 회사채 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금리차(2)

특수채3Y/은행채3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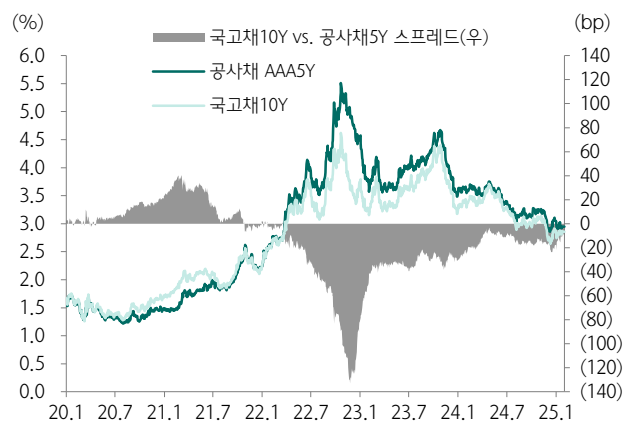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국고대비 Spread(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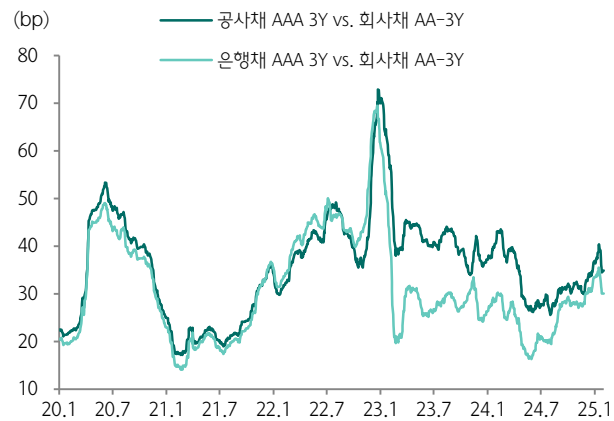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고채10Y/특수채5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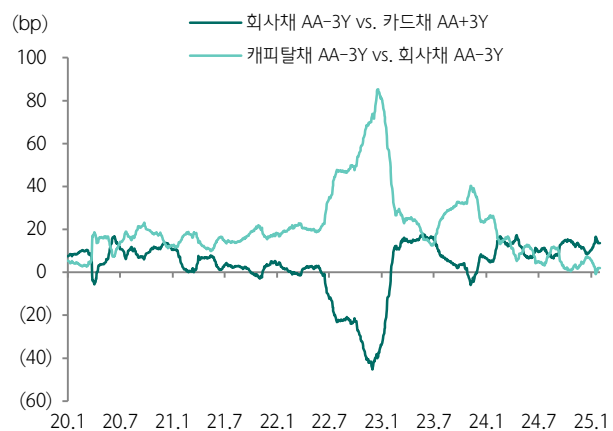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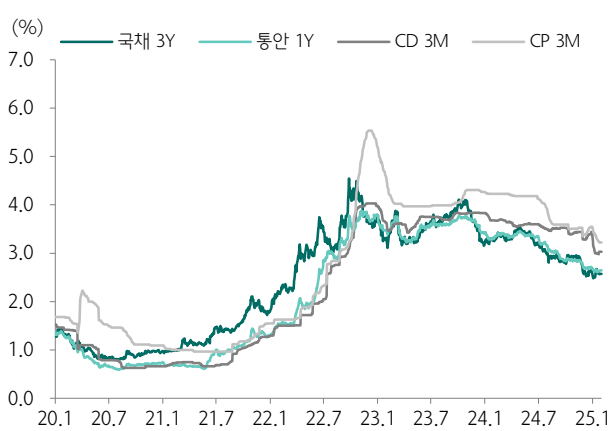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AA+/캐피탈채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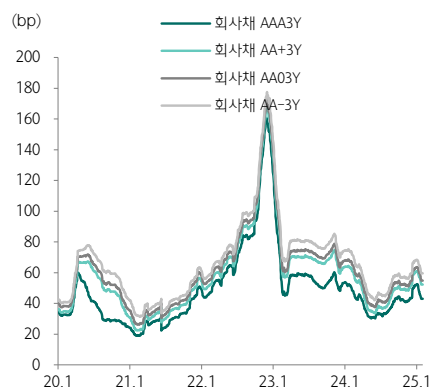
CP 3M/CD 3M/통안채1Y/국채3Y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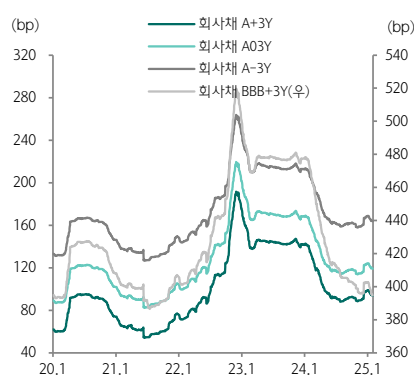
주요금리차(3)

AA등급 이상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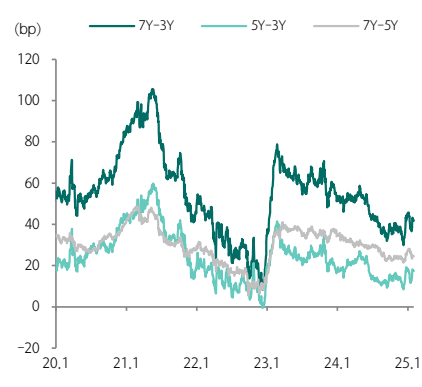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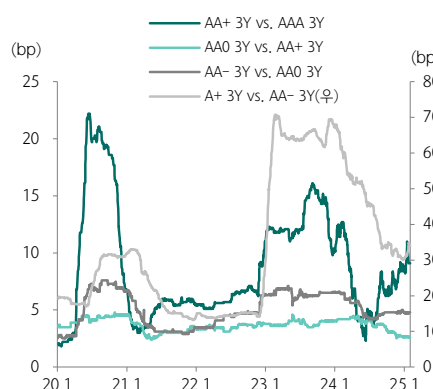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 장단기 스프레드(3Y/5Y/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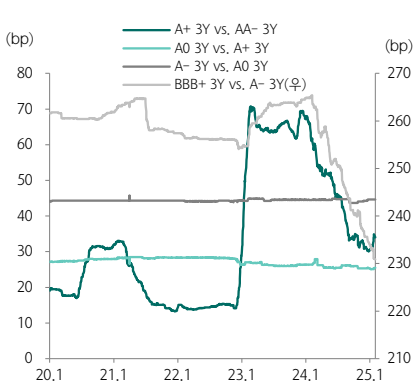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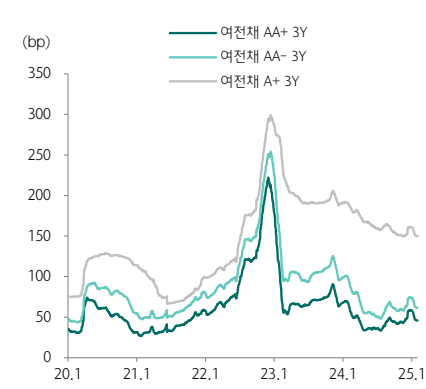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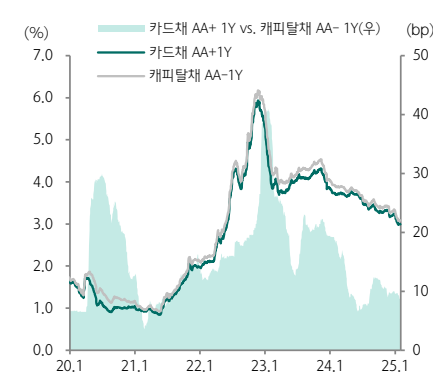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 3Y 스프레드 추이(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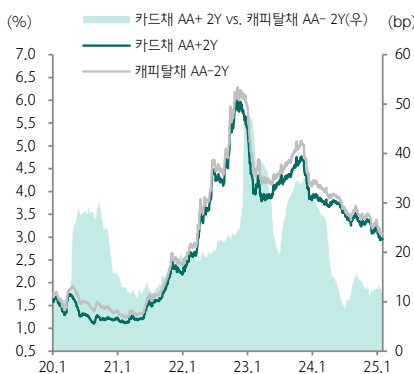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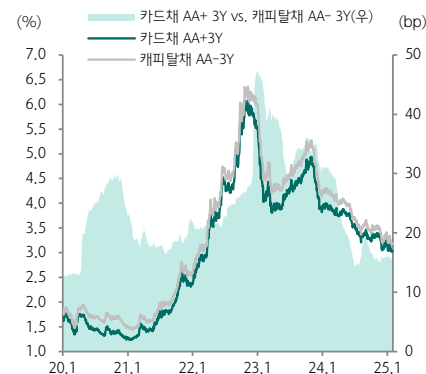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2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